

되살림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
도시재생
발행일 2020.06.26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알아보기 - 한려지구를 중심으로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urban regeneration) 이란 도시재생 뉴딜 (New deal) 사업이라고도 칭하며,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과거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도시 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여수시에서 종화지구, 문수주택지구 등과 함께 한려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수 관광의 1번지인 한려동이 도시 기능의 이전으로 쇠퇴됨에 따라 원 도심 활성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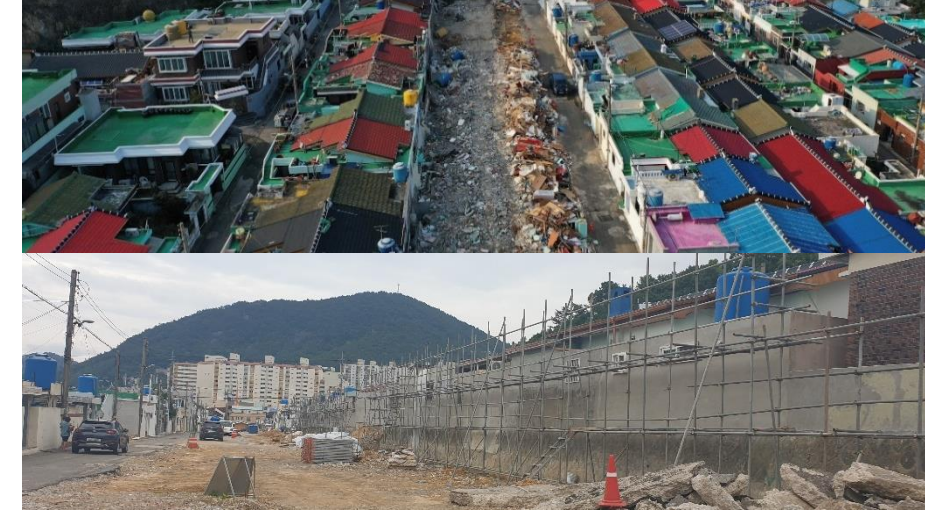
한려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마중물 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투자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중에서 마중물 사업은 문화, 관광, 주거환경, 공동체 활성화 등 4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209억 원 (국, 도, 시비)이 소요되며, 여수시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비 129억 원을 들여 9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 자본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 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지역이다.

여수시가 <관광객과 함께 넘실대는 한려, 더불어 사는 백년 계획>, <여성·청소년과 함께하는 백년재생>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한려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들여다보면 구) 여수역 앞에서 동문동 경계도로까지 여행자의 거리를 조성하고, 공화 사거리에서 수정사거리 구간은 스트리트 뮤지엄 사업 구간으로 여수고 서편 담장에 난중일기 조형물을 설치해 이순신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려동에 산재한 노후주택 정비 사업으로 노후주택 및 공가나 폐가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려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면서 공모사업을 선정된 '한지붕 한술밥'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공화동 바이브'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게 된다. 바이브 사업은 아로마 비누, 향수 만들기 체험수업을 통한 방문객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관의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과 민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지역주민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기 운동'을 펼쳐나갈 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려지구 총괄코디네이터 정채윤



6/24
문수지구 철거 후 현장관리



6/24
문수지구 도로공사현장 지원



6/15
종화지구 임시사랑방 집들이 지원



6/11
종화지구 주민공모사업 회의진행

SNS

blog blog.naver.com/yeosure

f 여수시도시재생지원센터

BAND band.us/band/72383612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0-7(종화동) 2층

연락처 : 061-659-5918

도시재생대학 전문가반 제4강



경상남도 진주 옥봉마을 선진지 답사

경남 진주 옥봉마을은 산비탈에 좁은 골목길과 주거지가 형성되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가옥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5년도 새들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험 마을투어를 하고 옥봉루에서 점심식사 후 진주옥봉사회적협동조합 박태수 이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달동네라고 불렸던 옥봉마을을 살린 멋진 사례를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옥봉루

옥봉루는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 직접 운영하는 곳이며 마을식당 운영과 집수리단, 돌봄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는 옥봉동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광림지구 새들마을조성사업 지원계획 1차 워크숍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

장소 : 광림동 주민센터 2층

저번 주 새들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기업 설립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다문 커뮤니케이션 박호준 대표님을 모셔서 신뢰로 만드는 경제공동체를 주제로 마을기업 설립과 준비과정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궁금증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차이점 및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을 기업 설립을 앞두고 있던 광림 지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6월 26일에 다시 모여 홍보 시제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려동 한지붕 한술밥 공동체 활성화



선진지 답사 / 순천시 문성마을과 농산물 가공센터

지난 6월 11일, 문성마을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건강식도 먹었습니다. 이후 문성마을 이호성 사무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며 협동조합 설립 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는 “순순순” 브랜드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들의 제품을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여 지역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 및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답사였습니다.

종화지구 새들마을조성사업



임시 사랑방 집들이 / 여수시 종화2길 18

지난 6월 15일, 종화지구에 임시 사랑방이 생겼습니다. 주민분들이 떡과 수박, 음료수를 챙겨오시고 새들마을 조성사업이 잘 풀리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첫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 하고 신규 참여 주민들도 모였습니다. 앞으로 사랑방의 운영과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채워져 마을 공동 이용시설이 오픈하는 날까지 잘 활용하도록 의지를 다졌습니다.

남만적인 청년들의 공유경제 워크숍



3회차 지역자원사업화 - 원도심관광 성공사례 및 마을기업 운영방안

공유경제 워크숍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라남도 청년CEO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정우영 원도심 관광협회장님께서 원도심 관광 성공사례 및 마을기업 운영방안에 대해 두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소개와 도시재생 관광사업체 현황 및 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공동체 사업 회계 및 세무를 주제로 전병덕 하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청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